

세계인의 책잔치, '95 서울국제도서전

20개국 1500여 출판사 30만권 출품 ... 명실상부한 국제전 면모 과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도서전이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태평양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세계로 가는 길, 책 속에 있습니다'의 주제 아래 열린 이번 광복 50주년 기념 '95서울국제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와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부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후원한 가운데 총 3140평, 516개 부스에 국내의 20개국 1500여 출판사가 30만여권의 도서를 출품, 명실상부한 국제출판시장 규모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의 장' 마련

특히 세계화 원년에 치르는 첫 국제도서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해외 20개국 54개 출판사(단위 참가 500여사)가 국제관 94부스로 참가, 실질적인 국제출판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에 열렸던 '95동경국제도서전시회의 27개국 68부스(초청 9부스)에 비해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가국 가운데는 일본이 18부스로 가장 많은 출판사들이 도서를 출품했으며 중국(8부스) 독일(8부스) 영국(6부스) 프랑스(6부스) 오스트레일리아(3부스) 등의 순으로 부수를 신청, 외국사들의 적극적인 국내시장 진출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밖에 아시아·태평양출판연합(APPA) 회원국인 몽골리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등도 참가, 눈길을 끈다.

개막식에는 대통령 및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국내 인사는 물론 페르난도 꾸에데스 국제출판협회(IPA) 회장과 다카오 와타나베 IPA부회장(일본출판협회장), 쏘 무웬 APPA 부회장(중국출판협회장) 및 APPA 운영위원 8명 등 외국 출판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더욱 성황을 이루었다. 또 초청 참관인 외에도 중국 52명, 영국 13명, 일본 100여명 이상 등 총 700여 해외 출판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회의 구성 형태는 전시장 입구를 중심으로 왼쪽의 국제관 84부스와 오른쪽의 국내관 425부스로 이뤄진다. 국내관은 다시 시사영어사 웅진출판 금성출판사 계몽사 동아출판사 등 아동물 출판사들을 오른쪽에, 현암사 삼성당 범우사 등 단행본출판사들을 왼쪽에 배치, 성격별 전시형태가 이뤄지도록 배려했다.

이번 서울 국제도서전에는 각종 전시도 다

**세계화 원년에 치르는 첫 국제
도서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20개국 54개
출판사가 국제관 94부스로 참가,
실질적인 국제출판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서전은
잔치성 위주의 성격보다 '저작권 시장'
의 전문기능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
멀티미디어시대 전자출판의 물결이
높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다.**

채롭게 마련됐다. 우선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은 공동의 책잔치를 벌인 국제전시장은 저작권 증개를 비롯해 국내에서 출판된 외국 원저작물의 전시와 각종 신간들이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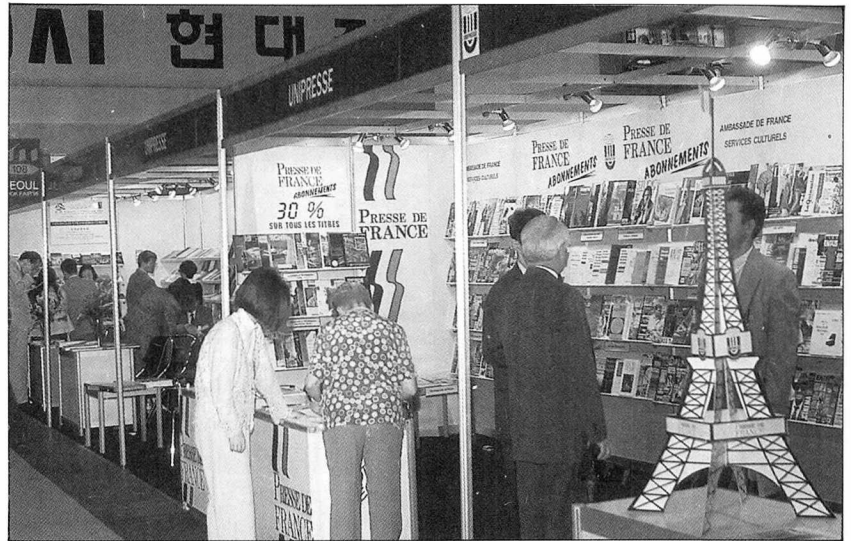
200여 개별 참가사로 꾸며진 국내관은 자사 이미지 홍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광복과 함께 창립된 동아출판사 을유문화사 현암사 등은 광복 50주년과 함께 창립 50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로 시선을 끌었다. 현암사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자사에서 출판된 책들을 한자리에 선보이고 동아출판사도 특별 행사와 함께 각종 실물전시와 비디오 상영을 마련했다.

국내 500여 출판사가 독자에게 가장 사랑하고픈 도서를 한자리에 모은 '우리사의 대표출판물 전시의 장'과 광복 이후 잡지 변천사를 보여주는 '잡지광장' 옛향기 그윽한 '구간명저 특별판매전' 그리고 해방 이후 50년간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각종 통계를 보여주는 간행물을 전시한 '통계로 본 광복 50년' 등 다양한 기획전시가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전시장을 찾는 독자를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전시안내정보센터'를 운영, 원하는 출판사 위치와 필요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변화된 전시장의 모습이다.

저작권 시장의 전문도서전 성격 뚜렷

한편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몇가지 점에서 이제까지의 도서전과 다른 특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제도서전이만큼 일반 독자를 위한 잔치성 위주의 성격보다 '저작권



국내 첫 국제도서전으로 개최된 '95서울 국제도서전 모습. 20개국이 참가한 국제관 부스(위)와 국내관의 멀티미디어 전시물(아래).

시장'으로서의 기능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최측이 각국 출판인과 서적상, 도서관계 및 저작권 관계자 등 전문인들의 만남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마련한 '전문인의 날'(17일) 운영에서도 나타났다.

국내의 관련인 3000여명이 모인 이날의 자리는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외국 출판인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저돌적인 탐색으로 더욱 열기를 더했다. 더불어 국제관에는 따로이 미팅룸을 마련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요원 4명을 배치, 국내외 출판인의 자연스런 교류도 활발했다.

이번 국제도서전의 또다른 특징은 외국의 국제도서전에서 이미 체감했던 멀티미디어시대 전자출판의 물결이 어느때보다도 높았다는 점이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 아동물 출판사를 선두로 CD 롬 타이틀의 전시가 부쩍 늘었다는 점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는 전시기간 중(18일) 열린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보호' 국제세미나(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세라톤 볼룸)에서 보였던 열기로도 증명됐다.

〈멀티미디어 관련법 제도의 정비방안〉(정상조·서울대 교수) 〈전자시대의 출판인〉(우베르 킬리에·프랑스 출법) 〈저작권,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토마스 드라이어·독일 막스-플랑크 국제저작권연구소)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세미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세계출판의 새로운 전망과 향방을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제전시회의 준비단계부터 대두됐던 '질과 양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와 전문도서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문제, 전자출판물에 대한 영문책 발간 등 국내출판사들의 국제감각을 유도하는 문제들은 내년의 도서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 김지원 기자